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 (목) 15시58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대한심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대한심사의건

(15시58분 개의)

○위원장 ○○○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 성원이 성립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 제가 먼저 설명,

○위원장 ○○○ 예, 그러면 오늘 모인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제5조에 의거해서 2024년도 중구의회의원 공무출장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위원 ○○○ 안건을 상정하는 게 아직 아닌데, 지금.

○의정팀장 ○○○ 예.

○위원 ○○○ 토론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팀장 ○○○ 예, 제가.

○위원 ○○○ 예.

○위원장 ○○○ 아니, 그 전에 여기 의정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죠?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이거 가·부를 지금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자는 거.

의정팀장님이시죠?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회의는 개의됐습니다, 그죠?

개이가 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을 듣고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여기서 다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이게 기록으로 남지도 않기 때문에 제기해 주시면 그걸 다루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가만있어, 회의는 지금 개이가 됐고.

개이가 됐는데, 지금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일단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건 뭐, 아니, 우리 위원님이 정하셔서.

○위원 ○○○ 회의는 시작된 거잖아요?

○위원장 ○○○ 회의는, 제가 성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 ○○○ 예.

○위원장 ○○○ 회의를 이게 우리가 뭐 개의를 안 할 그거는,

○위원 ○○○ 우리는 회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의를 시켜놓고 이 회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장 ○○○ 개이는 됐죠.

개이는 진행 됐고.

○위원 ○○○ 그거를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 회의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그거는 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성립이 됐죠, 성원이 됐으니까 개의를 제가 한 거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 듣기 전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설명 듣고 나서 하실 겁니까?

○위원 ○○○ 설명 듣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 그럼 지금은 설명을 좀 하시죠.

○위원 ○○○ 그 건은,

○위원 ○○○ 아니, 그건 아닌데.

○위원 ○○○ 그 건은 설명하기 전에 해야 될 얘기에요.

○위원 ○○○ 그게 아니고 저는,

○위원 ○○○ 기왕에 얘기할 거면.

○위원 ○○○ 예, 저는 사실 회의를 오늘 안 하고 미뤘으면 하는 입장이지는 합니

다.

○위원 ○○○ 그래도 어쨌든 성원은 됐으니까.

○위원장 ○○○ 성원은 돼가지고 개의는 됐고.

○위원 ○○○ 개의는 했으니까.

○위원 ○○○ 개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회의를 속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법적인 오류와 하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해야지 뭐가 맞는 거지, 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걸 논한다면 회의 다 한 것을 무산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 그걸 결정해야만, 회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만 회의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킬 건가 말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 그래,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지금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얘기를 좀 해 주,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죠, 일단, 그래서.

○위원 ○○○ 저는 이거에, 오늘 이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한 설명 자료와 정보를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다음에 미뤄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근데, 예.

○위원장 ○○○ 근데 전혀 연락은 못 받으셨나요?

○위원 ○○○ 예, 오늘 일정만, 여기 회의한다는 일정만 받았고요.

○위원장 ○○○ 일정 받으시고 아니, 그전에 뭐,

○위원 ○○○ 예, 전혀 못 받았습시다.

○위원장 ○○○ 전화상으로도?

○위원 ○○○ 예.

○위원장 ○○○ 뭐, 다 들으셨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여튼 전화를 받았습시다.

처음에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이 변경이 됐죠?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변경이 되고 해외출장 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또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회의를 개최하겠다 했다가 한 번 어떤 사유가 있어서 또 연기가 되고 그래서 다시 개최하겠다, 이렇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받았거든요?

저는 받았어요.

근데 위원님은 어떠세요?

○위원 ○○○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 아니, 이 자료는 못 받았죠.

이 자료는 못 받았는데 우리가,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심의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 아니, 근데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 규정을 좀, 여기에 회의 규정이 있죠?

회의 규정을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회의들은 일주일 전에 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송부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하기를 중구의회에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국회 통상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국회법에 의하면 최소한 모든 회의는 사전에, 일주일 전에 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위원들에게 주고 그 위원들이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것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걸 결의했을 때 나타날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공무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위원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명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통화를 통해서 장소가 샤프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들은 사항이고 또 다시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회 쪽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의록에 명기하는 조건하에, 그다음에 차후에 이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위원회에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회의를 속개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우리 ○○○ 위원님.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아, 동의,

○위원 ○○○ 예.

○위원장 ○○○ 어떻게 우리 부위원장님은?

의견 내신 대로?

○위원 ○○○ 예.

○위원장 ○○○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 ○○○ 예.

○위원장 ○○○ 예, 그러면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는 진행을 하는 거죠?

하고 속기록에도 그대로 좀 적어주시고.

예, 그러면 진행하시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 ○○○ 팀장님도 그거는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걸 다 동의하시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의정팀장 ○○○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 예.

○의정팀장 ○○○ 저희 불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정팀장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과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상정, 심사 후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 두 분은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회의록은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회의를 개의하는 것부터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한 결과,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처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 참석하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회의의 결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정팀장 ○○○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의회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드린 유인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출장개요입니다.

출장목적은 주변국인 일본의 의회와 시청을 방문하여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국제화 감각 함양, 해외 우수 문화 관광자원 현장 시찰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원도

심 활성화 성공 사례를 통한 우리 구 도입 가능성 모색 등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동기 및 내용입니다.

삿포로시와 북해도청 및 도의회 공식 방문을 통한 인접국 의회제도 및 행정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지역 공원 및 재래시장, 관광자원을 사찰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 재활용을 이용한 도심 공동화 해소와 관광상품 개발 사례를 통해 직접 보고 비교 검토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우리 구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이 동기 및 내용입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4박 5일간이며 출장국은 일본 북해도 지역입니다.

출장자는 중구의회의원 열한 분과 사무국 직원 6명, 총 17명으로 출장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출장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차인 5월 20일은 인천공항에서 10시 5분 출발하여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12시 50분에 도착 후 노보리베츠 대표 자연관광지 개발 시찰, 인프라 구축 현안 및 관광객 유치 방안과 중구의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일 차인 5월 21일은 삿포로시청을 방문하여 삿포로시의 관광진흥정책과 정책 및 MICE산업 성공 배경의 삿포로시의 담당자의 발표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중구 중촌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할 대전문화예술복합단지, 옛 충남도청사에 위치할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벤치마킹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삿포로 맥주 박물관, 시로이고이비토 파크를 방문하여 맥주와 과자 테마파크와 같은 특색 있는 테마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발전시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홋카이도 남구의 온천지대인 쇼잔케이로 이동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를 견학하고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 무수동 치유의 숲 등의 중구의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일정입니다.

3일 차인 5월 22일은 오타루시의 선진 도시재생 사례인 오타루 운하와 인근의 오르골 박물관, 기타이치 유리공방 등 옛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켜 관광과 경제 활성화가 된 사례를 시찰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공식 방문지인 북해도 도청의 관광진흥과를 방문, 면담하여 북해도의 관광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질의 시간을 통해 2월의 눈꽃축제, 5월의 라일락축제, 7~8월의 여름축제 등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들이 홋카이도 등지를 찾는 배경과 중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북해도의회를 방문, 면담하여 의원 보좌기능 및 도민과의 성공적인 소통 방법, 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와 상호 교류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삿포로시의 오오도리공원, 지역 재래시장을 시찰하여 구민 편의시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정입니다.

4일 차인 5월 23일은 인구 16만 도시, 소도시인 도마코마이시의회를 방문하여 효과적인 의회 운영제도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벤치마킹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삿포로시의 시코츠호수, 북해도신궁, 스텝키노 거리를 시찰하여 도시 외곽의 공원 조성 및 도시 중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정입니다.

5일 차인 5월 24일은 삿포로시 외곽의 모이와산에 있는 모이와 희생자의 위령비를 방문하여 모이와댐의 지하수도 공사를 위해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 추모 및 기념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북해도 구 본청사인 아카렌가 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리모델링 활용의 성공 사례를 시찰하고 우리 중구청사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4일 19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면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자의 개인별 업무 내용과 출장경비 및 출장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공무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우리 구 의회에서는 공무국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와 의원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드림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여기 이제 이 자료를 우리가 처음 접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지금 뒤에 나온 자료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출장자 개인별 여비와 관련된 내용, 행정경비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좀 설명을 지금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설명 들으면서 보면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정팀장 ○○○ 예, 지금 유인물에 보면 국외연수 계획서라고 해서 표찰로 돼 있는 서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 그거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의정팀장 ○○○ 따로, 별도로 국외연수 계획서 표시로 파일을,

○위원장 ○○○ 공무국외연수 설명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 설명자료 말고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 계획서 그러니까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위원 ○○○ 5쪽이에요.

○위원장 ○○○ 5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 예.

○의정팀장 ○○○ 지금 2쪽에 먼저 보시면 저희 출장자 명단이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열한 분과 직원분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의정팀장 ○○○ 예, 명단이 돼 있고요.

3쪽에 보면 일정, 출발 일정 계획서는 거기 간략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쪽에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을, 의원님들 별로 업무 내용을 구분해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시찰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쪽 편에 있는 것이 출장경비와 출장효과 내역을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 이거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질문이 나오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위원 ○○○ 예,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나 켜져 있나.

켜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의정팀장 ○○○ 예.

○위원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거 외유 간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작성됐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여기 와서 쓴소리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집행되어져야 되는데 출장목적 자체가 분명하질 않습니다.

이게 의정활동 역량 강화라는데 역량 강화라는 말을 넣었지만, 의정활동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훑어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대화하면 그것이 결국은 역량 강화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제화 감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그곳에 가야만 국제화가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우수 문화 관광자원 현장 시찰로 우리 구의 관광산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은 딱 두 번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말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관광산업이 샷포로하고 지금 중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비교할 게 없습니다.

삿포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눈꽃축제를 하는 것이고 온천이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온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문산 가지고 있지.

그래서 관광이라는 차원도 보면, 중구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특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인데 경제효과 창출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단,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맥주 공장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구에서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 삿포로의 제당회사에 공장을 지어서 붉은 벽돌 건물을 재활용하였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7페이지에 오타루 운하, 오르골 박물관을 얘기했는데, 이게 운하 건설했다는데 우리가 포항도 아니잖아요.

포항 같으면 뭐 형산강을 통해가지고 운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운하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부두 정비 사업을 했다는데 이 부두 정비 사업이 우리가 강도 제대로 없는 중구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해외 의회와의 비교 질의를 통한 의회 발전 방향 인식이라고, 방향 탐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직원들과 의회의 의원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무출장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목적이 좀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위원 ○○○ 이게 뒤에 5쪽에 그 급여, 아니, 급여라 그러냐?

○위원장 ○○○ 아, 그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위주로 좀 질문해 주시고 또 이제 설명을 계속하실 겁니다.

○위원 ○○○ 아니, 뭐 계속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다 다른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출장경비 문제에, 5쪽에 보면, 의장은 200 얼마고 부의장도 200 얼마고 의원은 170

이고 직원은 110이야.

이게 차등했어요, 이걸 이렇게?

○의정팀장 ○○○ 아니, 거기에 보시면 의원님들은 아홉 분으로 해서요, 1,700만 원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밑에 직원분들은 여섯 분으로 해서 1,100만 원 토털로 돼 있는데 항공운임비나 준비금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 ○○○ 그래요?

○의정팀장 ○○○ 예,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의장님과 의원님 구분하시고 일반 의원님과 직원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명목입니다.

○위원 ○○○ 그래요?

그럼 경비가 이제,

○위원 ○○○ 그러면 1인 얼마라고 보면 돼요?

○위원 ○○○ 1인, 나눠서 보면.

○위원 ○○○ 나눠서 보면 얼마라고 보면 돼요?

○의정팀장 ○○○ 한 245만 원 정도.

○위원 ○○○ 개인, 1인이요?

○의정팀장 ○○○ 예.

○위원 ○○○ 그러면 직원도 245, 의원도 245?

○의정팀장 ○○○ 예, 맞습니다.

○위원 ○○○ 아이고.

뭐 어차피 나가는 건데 이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안 나갈 일도 없는 것 같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예, 동의합니다.

○의정팀장 ○○○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심도 있고, 가가지고 더 각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모로 자료 수집과 또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 아하, 근데 이게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것을 서류를 꾸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라는 이 자체가 기본 틀에다가 매번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내용을 그냥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그다음에 그 지역을 반드시 가야만 우리 구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성이 드러나야만 공무출장에 문제가 안 되겠지, 이게 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시민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보면 이걸 완전 외유성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외유 가는 거, 공무를 가는 거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서 구의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구를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사실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17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가야 될까.

17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 개발이면 관광개발과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핵심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멍뚱그러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간다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개인별 업무에 관해서 쪽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목할 사업 발굴을 위해서 부의장은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번에 김석환 의원님은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이번 공무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실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보면, 아니, 저출산에 대한 그게 목적이 아닌데 왜 공무해외출장을 간다고, 공무국외연수를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나왔는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오은규 의원님이 가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축제 방문자를 통한 소비 촉진 전략 연구를 위해서 간다는데 그러면 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하고 샤프로에서 하고 있는 축제하고 2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축제를, 중구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 부족한 면이 많지마는 선진, 축제 쪽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작으나마, 미력하나마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고자 노력하는 뜻에서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반대하거나, 공무해외연수 자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류를 꾸미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오한숙 의원님도 지금 보니까 일본의 유보통합 정책.

유보통합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유보통합이 여기 공무국외연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육아 지원에 관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없어요.

고독사 부분도 사실은 목적에 없어요, 공무 목적에 없어요.

노인 여가생활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으로 연수단 실무 총괄, 실무 관리.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력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로 지시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17명이 가는 걸로 이렇게 짜여졌다고 한다면 최소한 개인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 총회가 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원들이 각자 맡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행정자치위원장이 관광 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비교시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 중에서, 팀장, 직원들 중에서 이 관광에 관해서 관광이 목적이고 중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중구청에 있는 관광팀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맞았을 때 공무해외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공무해외연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나가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배우고 와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가서 외유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효과적이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세금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무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의정팀장 ○○○ 예, 감사합니다. 깊게 되새기겠습니다.

○위원 ○○○ 예, 위원장님, 전체 안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

○위원장 ○○○ 어떻게요?

○위원 ○○○ 동의, 이거, 이거.

○위원장 ○○○ 아, 이거 때, 이걸 뭐,

○위원 ○○○ 동의안을 냈으니까 재청받고 가·부를 물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 아, 가만있어, 그,

○위원 ○○○ 더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끝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돼 있네요?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가’ 나 ‘부’ 를,

○위원 ○○○ 여기서 통과를 해야 서명을 하는 거죠.

○위원장 ○○○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심사의결서에 ‘가’ 를 하면 ‘가’ 에 표시를 하고 ‘부’ 를 하면 ‘부’ 에 표시하고 그런 거죠?

○의정팀장 ○○○ 예,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좀 나눠 주세요.

나눠 주시고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이거 가·부서에 ‘가’ 든 ‘부’ 든 표시해 주면 그걸 제가 모아서 뭐 가결이 되었으면 가결이 됐다 아니면 부결됐다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 ○○○ 아, 그래요?

○위원장 ○○○ 이거 보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심사,

○위원 ○○○ 아니, 위원장님이 묻기는 물어야죠.

○의정팀장 ○○○ 예.

○위원 ○○○ 안 물어요?

○위원장 ○○○ 아니, 그 심사의결서에 가·부를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받으셔서 지고 거기에 일단은 표시를 해 주세요.

○위원 ○○○ 그래요?

○위원장 ○○○ 예.

○위원 ○○○ 예, 그러면 가·부 표시하죠.

○위원장 ○○○ 아니,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여기서 가·부를 물어주면, 통과되면 거기다 사인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 생각은.

○위원장 ○○○ 아니, 근데 이거 회의록에, 저한테 주신 이 회의록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뭐 이렇게 해서,

○위원 ○○○ 근데 이게,

○위원장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의결서에 서명 다 하셨습니까?”, “서명 다 함 하는 위원들 있음” 이렇게.

집계 후에, 서명을 다 하고 나서 집계를 하라는 거예요, 집계를 해서,

○위원 ○○○ 이게 회의 성격 자체가 심의 의결이 아니잖아요.

회의 성격 자체가 심의 의결이 아니고 심의잖아요?

심의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의정팀장 ○○○ 아니, 심의하신 후에 의결을 정해 주셔야지만,

○위원 ○○○ 여기서 의결을 해 줘야.

○위원 ○○○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의정팀장 ○○○ 예,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가·부로 해서,

○위원장 ○○○ 여기서 부결을 하면 뭐,  
○위원 ○○○ 못 간다는 거죠.  
○위원장 ○○○ 못 가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그렇죠?  
○의정팀장 ○○○ 3분의 2, 분이 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위원 ○○○ 여기 지금 3분의 2면 여기에 나온 사람의 3분의 2인가요?  
○위원장 ○○○ 3분의 2죠, 예.  
○위원 ○○○ 3명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위원장 ○○○ 일단 그러면 구두로 제가, 어차피 서명을 여기에, 구두로 답하신 대로 여기에 ‘가’ 나 ‘부’ 를 답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제가 구두로 가·부를 여쭙볼까요?  
○위원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 다른 의,  
○위원 ○○○ 이미 충분히 공감대로 이걸 계속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지금.  
○위원장 ○○○ 근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원이세요, 그분도?  
○의정팀장 ○○○ 예, 전문위원 그쪽에서부터 저희 6명이 직원이십니다.  
의원님들 보좌하시고 사도위하고 행자위라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시고 보필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 근데 의원들이 총 지금,  
○의정팀장 ○○○ 열한 분이 가십니다.  
○위원장 ○○○ 열한 분이시고.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직원분이 그러면 여섯 분이 가시네요?  
○의정팀장 ○○○ 예.  
○위원 ○○○ 가·부를 물어서 끝내죠, 그거 끝내죠.  
○위원장 ○○○ 그러면 가·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 ○○○ 예.  
○위원장 ○○○ 우리 ○○○ 위원님이 가·부를 자꾸 이렇게 물으라고 했고,  
○위원 ○○○ 아니, 뭐 어차피 얘기해서 뭐.  
○위원 ○○○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류를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외유가 아닌 공무출

장을 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벽하게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이,

○위원 ○○○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 출국하고서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위원 ○○○ 보고서를 정말 잘...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가·부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에 관해서요.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우선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으시고 다 찬성하십니까?

○위원 ○○○ 예, 다 마음이 좋아서.

○위원장 ○○○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위원 ○○○ 기권?

○위원장 ○○○ 기권하신 거예요?

(○○○ 위원 고개 끄덕임)

자, 세 분 그렇게 했습니다.

부는 없으셨고.

○의정팀장 ○○○ 예.

○위원장 ○○○ 예, 그렇게 ‘가’가 세 분.

그렇게 해서, 4명이 참석해서 3명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3분의 2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을 선포를 했고요.

뭐 다른, 그 외에 의견이나 질문 사항 없으시면 폐회를 어떻게 할까요, 폐회에 관해서?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 ○○○ 폐회, 재청합니다.

○위원장 ○○○ 동의, 재청하셨습니다.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 ‘가’ 시면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예』)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전원 외부위원

이정호

김지연

신인철

박규용

○출석공무원(1인)

의정팀장 홍광섭